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역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

현 미 경* · 황 경 수**

요 약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로 이어지며 많은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정도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문화 가정에서의 문화적응에 대한 문제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일어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문화적응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면서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적응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기 개입이 중요한 이유이다. 아이들은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자산이다. 다문화라는 이름은 또 다른 경계(境界)를 만들거나 사회적 연대를 낳

*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으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은폐하거나 개인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지역사회, 지역문화 부적응의 문제는 이동발달 과정부터 성인기까지 지속될 여지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들을 통하여 학교생활과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적응의 정도를 살펴보고, 정체성 인지의 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의 차원에서 보다 밀접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요 색인어: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자아정체성,
학교적응

1. 서론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점증하고 있다.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비율은 전국대비 제주지역은 05년 0.75%에서 09년 1.3%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 수는 2007년 394명에서 2008년 734명으로 갑절이상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연령 만7세~12세인 아동이 185명, 만6세 이하의 아동은 490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한국인과 새 소수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복합연계성(complex connectivity)에 의해 지역과 문화의 일대일 연결이 끊어진 탈 영토화의 특성을 지니게 하여 상호연계 및 의존의 네트워크가 급속히 발전하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적 차원, 지역적 차원, 국민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 지구적 차원 사이의 상호 밀도가 높아져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최종렬, 2009). 그러나 국민국가 문화 또는 국민국가안의 특정지역과 문화의 일대일 연계를 당연시하는 기존의 다문화주의의 담론으로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 지역사회 적응 문제, 아동의 적응 문제, 한국인 가족의 인식 문제 등 여러 가지 병리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하겠다.

그 중에도 국제결혼 가정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문제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문제 수준도 심각한 편이다. 2008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다문화 가정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 2만4867명 중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1만8769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4.5%, 즉 4명 중 1명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연령층인 만7~12세의 아동의 15.4% 및 중학생 39.7%, 고등학생 69.7%가 학교에 다니지 못해 상급학교로 올

라갈수록 중도탈락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¹⁾.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동의 언어 및 학습 저하 문제이다. 오성배(2005, 2007)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아동들이 일상적 의사소통에서는 별 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문장이해력이나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 발달이 또래 아동들보다 지체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정은희(2004)는 아동의 언어습득 및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을 가정환경으로, 특히 부모와의 언어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박주희·남지숙, 2010 재인용)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 어머니와의 꾸준한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아동들에 비해 한국어의 습득이 느리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력의 부족으로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래 아동들과 다른 이모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정세성의 갈등에 직면하기도 한다(정예리·이숙희, 2009).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엄마로부터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과 구별되는 외모 차이로 인해 또래 아이들로부터 소외되고, 빈곤과 부모의 이혼 등으로 방치되기도 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아이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지역문화 부적응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발달 과정보터 성인기까지 지속될 여지가 있어 다문화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1) 헤럴드경제, 2010.8.17. "다문화사회....다문화가정 아동교육, 자립능력에 초점 뒤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곽금주(2008)는 자신의 연구에서 아동 자신의 문화적응은 물론 부모의 문화적응 정도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응은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상호작용, 식습관, 가족의 역할 등에 영향을 주며 지역의 문화적응 정도에 따라 아동의 발달 양상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확장하면 부모의 활동영역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을 다문화라는 울타리에 갇혀 만약에 그들만을 위한 소수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에 종속되는 자녀들은 그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에 흡수되지 못하며 또 다른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여 또래 아동들과 구별되는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²⁾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영주(2007)는 '초기 아동기 개입(McCord, 1990)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동의 문제를 교육적 차원이나 국제결혼 가정만의 문제로만 인식한다면 국제결혼아동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지역의 주변인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적응의 문제는 요구도 점점 증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2) 적응이란 개인이 항상 변화하는 사회 환경 또는 사회적 여건 하에 자기 자신의 욕구가 잘 충족되거나 조절되어 이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제반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스스로의 생활에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응(adjustment)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맞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해 나가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개체와 환경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최영자, 2008).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정책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착 이를 수행할 지자체의 조직이나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다문화 사업의 중복이나 혼선이 발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또한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의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으로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문화체험, 역사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정체성을 통해 지역문화적응에 대한 연구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항목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과 아동의 정체성으로 구성하였는데, 특히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생활, 문화 활동, 엄마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사례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 집단으로 설정하고, 관찰조사, 심층 면접 조사 방법 등을 적용하고자 한다.

II. 다문화 가정 아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검토

다문화에 대해 이태주(2007)는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문화라는 개념이 지니는 애매 모호성과 이중성, 맥락성, 이념성만큼이나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상황에 대한 사실 기술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이고 레토릭³⁾이

며 공동체의 규범이며, 미래의 비전과 이상이고, 현실 정치이고, 실용적 정책수단이며 또 다른 국가 통합의 이념이 되기도 한다며 다문화 사회, 다문화 시대, 다문화 가정 등 다문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구분되는 학술적인 용어로서가 아닌, 미디어와 현장봉사자들 사이에서 시사적인 용어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로 형성된 가정, 그 안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 일컫는다(곽병선·김희숙, 2009). 또한 이러한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혼혈인 복지단체에서 창안한 것으로 인종적, 문화적 차원에서 혼혈인의 정체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혼혈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체성 혼란에 있다고 보고 안정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문화적 조건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한정애, 2008).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지칭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초등학교 아동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라 지칭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생활에 대한 요인이다. 학교생활의 적응은 아동의 행동이

3) 修辭學, rhetoric: 언어를 매개로 사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사람, 즉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말 또는 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4) 아동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신생아와 유아를 포함하는 청소년기 이전의 연령층을 뜻하며 보통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6세부터 초등학교를 마치는 만 12세까지의 시기로 신체, 지능, 언어 및 사회, 정서 등 모든 측면의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어 인생의 기초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아동기의 일반적 특성은 학교에 입학하여 지내는 시기를 학령기라 하며, 학교교육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아동의 생활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생활 범위와 사회적 환경이 크게 확대되고 사회적 환경이 크게 확대되며 사회적 행동이 현저히 발달하여 사회적으로 우월하려고 한다. 이때가 되면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접촉이나 또래들의 인정에 더 민감해지며 관심을 갖는다. 집단에 소속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또래 친구와 결속력이 강한 집단을 만들기도 하여 이 시기를 또래시대라고도 부른다(한정애, 2008).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 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며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다(류윤석, 1996 재인용). 최영자(2008)는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정서지능은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I)이란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는 능력, 사고를 지원하는 자신의 정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일반적인 정서와 더불어 유발하는 개인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및 훌륭한 정서와 사려 깊은 사고를 지니도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된다. 이러한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은 하위요인별로 감정이입 측면에서 사회적 적응과 정의적 적응 요인이, 정서조절 측면에서는 학업적 적응과 정의적 적응 요인이, 정서표현과 정서이해 측면에서는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 정의적 요인과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체적으로 정서지능이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행히 이러한 정서지능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므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동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학교적응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혜정(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학교적응,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를 변인으로 삼아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정체성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 자아정

5) Erikson(1968)은 개인의 정체성을 객관적인 측면인 심리 사회적 정체성과 주관적

체성이란 사회의 상호작용들을 통하여 형성, 발달되는 것으로 자기를 묘사해주는 자기상들의 복합이다. 이러한 자아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연구대상자의 한국어 실력,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친구지지와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교우관계,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관계,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는 교우관계,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관계가 자아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는 자아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복희(2009)는 초등학생을 위한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아동들의 교우관계 향상은 또래 관계의 긍정적 자각을 향상시키며 초등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부적응 아동의 교우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우정의 형성과 발전에 필요한 친구 관계의 방식을 인식하여 자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 보다 많은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해가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교제의 지속성, 친구간의 적응, 친구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된 프로그램

측면의 개별적 정체감으로 구별하고 있다. 심리 사회적 정체성이란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 또는 일체감을 의미하고 개별적 정체성이란 이러한 집단적인 정체 인식 속에서도 개인이 자신을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제와 통합하는 방식에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통합화 방식이 자기가 타인에게 주는 개인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 나가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신혜정, 2007재인용).

램이다.

김형심(2007)은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문화 활동 경험을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할수록, 또한 문화 활동을 조직적, 주체적으로 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관련정보 수집 및 많은 문화 활동 프로그램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아동의 학교생활, 문화 생활, 정체성의 인지는 아동이 지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들이다. 제주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요구는 날로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 혹은 학교차원의 연구는 많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제주지역 학생들의 학생활동과, 문화 활동, 정체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자신이 다른 또래아동과 구분지어지는 모습, 미래계획, 식구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자신에 대한 인지도 등을 설문내용으로 추출하여 아동이 인지하고 있는 정체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학교적응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행사참여, 성적, 등의 요소를 통해 학교적응에 따른 정체성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의 교우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친구들의 숫자,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를 학교적응에 관한 설문내용에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의 적응과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아동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여 현재하고 있

는 활동의 종류와 권유자, 기간은 어떻게 됐는지, 또 배우고 싶은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문항을 추출하여 그러한 문화 활동이 아동의 정체성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들 지역문화와 정체성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를 통한 합의 도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들에 대한 주변 환경과 연관된 측면이 많다. 광금주(2008)는 부모와 아동의 지역문화적응이 부모-자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영숙·공진희·이민경(2007)은 대부분 가정 자녀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지만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인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녀와 애정적 관계는 형성할 수 있지만 자녀를 교육적이고 훈육적 양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도희·이경은(2009)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배우자의 지지(남편의 협력)가 양육의 주요 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각각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국인 남편의 지지체계는 양육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간접적인 효과를 낳게 되어 결혼이민자의 양육 효능감을 높인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정책을 학생의 문제차원을 넘어 이주한 여성들, 더 나아가 배우자,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더불어 나서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신혜정(2007)은 사회적 지지⁶⁾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학교생활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는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교정·정규석(2008)은 동일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경제수준과 출생유형에 따라 학습활동 수준과 대인관계에서 통계학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재학유형이 높아질수록, 경제수준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성장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지만 그 자각의 정도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 외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생활하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을 당연히 한국인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와 현재 살고 있는 한국과 어머니 나라 모두를 자신들의 나라로 인식하며 자신들의 어머니가 또래 아동들의 어머니와 다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형태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많은 논의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응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였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또래 아동들과 잘 융화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줄여나갈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다. 권순희(2007)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차별적인 교사의 대우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 동료나 선배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학생만의 상담 지도가 아닌 부모와 가족을 상대로 한 상담 및 지

6)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다(신혜정, 2007).

도와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매결연 방법을 통한 가족단위 연계프로그램을 구안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박미경·엄정애(2007)는 교사들의 결혼이민자 가정유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오히려 더 편견을 만들고 차별시키게 한다며 타자화⁷⁾에 대해 우려로 '지나친 도움'과 '지나친 배려'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 하여금 더욱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므로 그냥 '한국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동화주의 모델은 단순히 개인차원의 변화에 맞춰 지역문화의 적응력을 높이려 하는 것 보다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지역과 다문화 가정 관계에서 서로간의 폭넓은 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과, '지나친 도움'과 '지나친 배려'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 하여금 더욱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므로 그냥 '한국아이'라고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부모가 양육함에 있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정책의 필요성이 당위적이라 하겠

7) Deleuze에 의하면, 타자화는 '차이의 정치학'으로 해석된다. 차이는 보편적인 것의 특별한 경우나 예로 간주된 단수(홍길동은 '인간'이다)와 그 단수성(singularity) 속에서 간주된 단수(홍길동은 홍길동이기 때문에 홍길동이다.) 사이에서 생겨난다. 차이는 차이 그 자체이다. 이러한 차이의 논리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 타자화의 논리는 공통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분류 배제하는 것이다. 타자화는 배제와 동일화를 계기로 하며, 배제를 통해 동일성이 확보된다. 가령백인은 피부색을 기준으로 유색인을 자신들과 공통점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배제하고(타자화), 동시에 그렇게 배제된 대상을 근거로 자기동일성을 확증한다(동일화) (임의영,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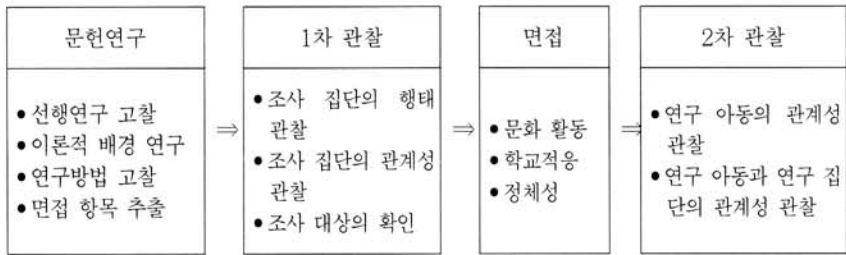
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적응 정도를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한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들의 정체성과 학교적응력을 통한 지역문화적응에 대해 알아보기 면접조사와 행태관찰을 통해 시행하였다. 먼저 면접을 위한 설문문의 내용은 최영자(2008), 신혜정(2007), 나복희(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선행연구의 설문을 중심으로 몇 개의 문항만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고, 정체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혜정(2007)이 사용한 척도를 중심으로 선별한 자아정체성에 대한 면접설문지로 사용하였다. 또한, 문화생활 활동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김형심(2007)이 사용한 문화생활활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참여관찰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행태관찰일지를 기록하여 면접과 학생의 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여관찰은 연구하고자 하는 세계에 들어가 그곳의 환경이나 사람, 그리고 생활에 친숙해지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사전지식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그대로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특정 문화에 대한 사전연구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연구자는 참여관찰에 의거하여 관찰한 내용을 현장노트에 꼼꼼히 기록하여 분석과 해석의 자료로 삼는다(김성호 2007)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Ⅲ.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지역문화 적응에 대한 분석

1. 분석대상 집단

1) 표본 설계 및 조사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모사업인 2009 아트리치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업인 '제주다문화가정 합창단(다나눔 다사랑)'과,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 미사'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정하였다. 이 아동들을 사례로 정한 이유는 첫째,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제주다문화 가정 합창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만날 수 있어 가족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를 시작하는 시기에 프로그램이 시작하여 시간적 변화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특히 '외국인 미사'에 참석하는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제주 각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외국인 미사에 참석하게 되므로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의 가족을 대상으로 관찰, 면접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참여관찰조사는 연구자가 특정집단의 일상세계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이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조사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집단에 들어가 그곳의 환경이나 사람, 그리고 생활에 친숙해지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가 다른 집단보다 쉽게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수는 각각 4명씩 모두 8명의 아동이며 관찰기간은 2009년 09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2) 연구 대상의 기본사항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으로 구성, 총 8명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학년은 1학년~3학년 5명, 4학년~6학년 3명이다. 연구대상 학생의 어머니의 국적은 필리핀 5명, 일본인 3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서쪽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6명으로 많았으며, 그 외에는 서귀포 2명, 제주시 1명 순이었다.

〈표 1〉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사항

대상자	성별	어머니 고향	학년	사는 지역	본인종교 (어머니 종교)	본인이 느끼는 생활수준 (아버지 직업)	학생의 모국어(母國語) 정도 (학생이 느끼는 어머니의 한국어 정도) -평소대화 언어
사례1	여	필리핀	6	납읍	없음 (가톨릭)	잘 산다 (가게운영)	모름 (보통)-한국어대화
사례2	남	필리핀	4	납읍	없음 (가톨릭)	잘 산다 (가게운영)	모름 (보통)-한국어대화

대상자	성별	어머니 고향	학년	사는 지역	본인종교 (어머니 종교)	본인이 느끼는 생활수준 (아버지 직업)	학생의 모국어(母國語) 정도 (학생이 느끼는 어머니의 한국어 정도) -평소대화 언어
사례3	남	일본	3	애월	개신교 (개신교)	보통 (박스수거)	인사 정도 (보통)-한국어대화
사례4	남	일본	1	애월	없음 (없음)	보통 (-)	인사 가능 (보통)-한국어대화
사례5	남	필리핀	6	서귀포	가톨릭 (가톨릭)	잘 산다 (환경미화원)	- (보통)-한국어대화
사례6	남	일본	2	제주시	없음 (없음)	중간 (회사원)	대화가능 (보통)-한국어대화
사례7	여	필리핀	3	서귀포	가톨릭 (가톨릭)	학교 갈 때 용돈으로 1만원씩 받는다. (어부)	잘 모름 (보통)-한국어대화
사례8	여	필리핀	3	신창	가톨릭 (가톨릭)	보통 (-)	잘 모름 (보통)-한국어대화

2.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적응 정도

먼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 활동⁸⁾의 정도를 알아 보았다. 아동들의 문화 활동은 학원을 통한 것이 전부였다. 종류는 피아노와 미술, 그리고 검도, 태권도 정도의 운동이며 여학생들은 음악과 미술에 관련된 활동을, 남학생은 검도 혹은 태권도와 같은 체육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활동적이며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반해 여학생은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체육을

8)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문화 활동에 대한 범주는 학생들의 학교 내의 취미활동 또는 학원 등을 통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의 범주를 이야기 한다.

선호하지 않는 다는 박경석(2009)의 연구에 대하여 다문화학생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활동을 함에 있어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의지, 특히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 다니기 시작했다는 아동이 5명중에 4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아동들의 문화적 소양은 부모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들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찾아내고, 조직하며, 관리하는 등 자녀를 위한 첫 번째 '관리자'로 일한다는 부모리더십⁹⁾에 대한 것(박연경·황혜정 2009)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동의 문화 활동 경험은 부모의 권유를 통해 이루어지며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에 의한 권유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화 활동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행동을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대답을 하거나 행동을 함에도 거침이 없어보였으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연구자가 질문을 해도 수줍음을 타며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문화 활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문화적응¹⁰⁾은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에서 출발한다. 아버지의 양육적 지지는 사회적 능력 형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부모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들의 문화 활동

9)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가족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목표수행에 자발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의 영향력이다.(박연경·황혜정 2009)

10) 문화적응을 심리적인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심리적 적응은 내적 심리적인 결과로서 개인적 문화정체성, 좋은 정신건강, 그리고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개인적인 만족감의 성취 등을 말한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개인이 새로운 환경과 연관된 외적 심리적 결과로서 특히 가족생활과 직장, 그리고 학교의 영역에서 매일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강유미, 2009.02)

을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보조해주는 등의 정책적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

〈표 2〉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 활동

대상자	문화 활동 (학원수업 포함)	문화 활동 권유는 누가?	또래 아동과 친분관계	활동기간	타 활동에 대한 관심
사례1	피아노 학원	아빠	많다	오래됐다	관심 없음
사례2	검도 학원	아빠		오래됐다	컴퓨터
사례3	수학 학원 다녔었음	본인 (누나가 대답함)	별로 없다	얼마 되지 않는다.	검도
사례4	없음	-	학교친구 보다 동네친구가 많다	-	축구
사례5	태권도 학원	아빠	친구들 많다.	1년 좀 넘었다	-
사례6	태권도 학원	아빠	친구들 많다	얼마 되지 않는다.	별로 관심 없다.
사례7	미술 학원	-	친구들 많다	전에는 피아노 학원, 지금은 미술학원 다닌다.	만들기
사례8	없음	-	친구들 많다	-	무응답

3.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정도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¹¹⁾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였다. 아동

11) 학교생활적응은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학교의제반 규칙과 질서, 교사 및 친구들 간에 조화롭고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김은정, 2009). 또한 아동의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같은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가는 것, 즉, 교사와의 관계, 학생들

들에게서 동네친구들보다는 학교친구가 많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공부를 같이한다거나 방과 후에 같이 논다는 학생들은 없었다.

Q 1.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같이 놀지 않니?

사례3: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 모두 학원에 가버리기 때문에 같이 놀 시간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사례5: “수업이 끝나면 엄마가 가는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어요.”

Q 2. 그럼 학교에서 쉬는 시간엔 친구들과 뭘 하면서 놀아?

사례3: “다른 친구들도 책을 보고, 잘 놀지 않아요, 같이 놀자고 하는 친구도 없어요.”

사례3)의 남학생 경우 처음에는 친구들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질문했을 때 별로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그 남학생은 그 집단의 다른 아동들과 달리 1차 관찰시 센터에 또래 친구(동네)라며 데리고 와서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친구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니 그때는 친구가 많다고 다시 정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학생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컴퓨터 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다른 책상은 놔두고 강사가 앉는 자리인 맨 앞자리 컴퓨터를 차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스피커가 그곳에 밖에 없어서요.”라고 하였지만, 컴퓨터의 스피커는 사용하지 않았을 뿐 더러 자신과 컴퓨터 주위에 많은 의자들을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이 와서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요.”라는 단순한 대

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서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학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학습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태라는 것이다.(최영자, 2008, p.17)

답이었다. 이러한 사례자의 심리상태가 궁금하였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지 않는다는 질문에 사례5)의 남학생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아이의 표정에서 어쩔 수 없다는 듯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아동들이 또래 학생들과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이질감은 없지만 부모와 아동의 문화적응이 부모-자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박금주(2008)의 연구와 문제의식을 같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또래 아동과의 분리는 지역의 문화적응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아동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래문화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학교생활

대상자	학교행사 참석	학교 준비물 준비	성적	친구에게 놀림 받은 적 (친구 수)	선생님 과 관계
사례1	참석 한다	스스로	사회, 수학 어렵다. 성적 별로 좋지 않다	없다. (10명 이상)	보통
사례2	-	스스로	국어점수 70점정도	-	-
사례3	참석 한다	스스로 깜박할 때만 엄마가 챙겨준다.	평균 70점정도	없다 (10명이상)	보통
사례4	-	엄마	80점-40점 사이	많다 (많아요, 10명 이상)	-
사례5	잘 참석	간단한 것은 스스로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엄마에게 부탁	보통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 (많다. 10명 이상)	무섭지 않아 좋다
사례6	잘 참석	스스로	-	많다	좋다
사례7	참석	스스로	보통	많다	좋다
사례8	잘 참석	스스로	보통	많다	좋다

학교 준비물 준비는 누가 해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스스로 준비하며, 자신이 준비하기 힘들거나 비용이 많이들 때 부모님에게 말씀드린다고 대답하였다. 학교 성적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쯤이라는 대답과 평균 70점정도의 점수를 받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한 아동에게서 수학이나 사회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대부분의 아동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듯 건성건성 대답하였고 스스로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받을 수 없었다. 그 중에 (사례3) 남학생의 누나가 “동생이 수학을 잘해요, 근데 점수가 좀 떨어져서 엄마에게 졸라 수학학원에 다니고 있어요.”라며 대신 답변해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생일초대 경험에 대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는 듯 눈만 멀뚱거리며 쉽게 대답하지 못하였고 (사례3)의 남학생 정도만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저번 수업시간에 생일초대 카드를 만들어 서로 교환했다며 대답하는 정도였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때 카드를 받았지만 갈 생각도 안했다며 생일초대라는 것에 대하여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Q 1. 혹시, 친구들에게 외국인이라고 놀림 받은 적 있니?

사례3: 아뇨?!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일본어로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사례4: 저도요, 친구들이 일본어 해보라고 해서 숫자 세는 법 말해 줬는데...

사례5: 처음 학교 갈 때 아이들이 놀려서 싫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Q 2. 혹시 학교 다니면서 좋은 점이나 싫은 점이 있니?

사례1: 제가 사회를 잘 못해요, 전에는 여선생님들이 사회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쉽고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자선생님은 사회를 너무 어렵게, 잘 못 가르쳐줘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학

교가기 싫어요!

사례2: 학교가기 싫어요. 보충수업 받는 것이 너무 싫어요!

사례5: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재밌어서 좋아요

사례6: 국어시간이 어렵고 힘들어요.

많은 질문 중에 연구자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친구들에게 외국인이라고 놀림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사례5)의 남자학생 정도만 예전에 있었다는 대답 뿐 다른 아동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오히려 (사례3) 과 (사례4)의 남학생은 오히려 친구들이 관심 있게 물어봤으며 놀림 받은 적 없다고 말하였다. 연구자가 보기에 연구대상의 아동들은 또래 아이들과 구별 지어지게 특별히 얼굴 생김이 특별한 차이가 나거나, 한국어 표현이 어눌하다거나 하는 표면적 특징을 잘 느낄 수 없었다. 연구대상 아동들이 또래 아동에게서 별다른 차별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은 노경란·방우정(2008)의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동남아인에 대해 편견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국 초등학생들은 성인들의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아직 내재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연구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학교친구들 수에 대하여 대부분이 10명 이상으로 많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관찰로는 그저 단순한 친구관계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학교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도 대체적으로 양호한편이라 할 수 있지만, 학교의 과제물이나 준비물은 대부분 아동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인 어머니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여하는 부분이 일반 또래 학생의 어머니들 보다 관심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4. 학생들의 정체성 정도

1) 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

다문화 학생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하였다.

〈표 4〉 학생이 인지하는 어머니에 대한 관심도

대상자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학생의 모국어 (母國語) 수준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랑	엄마가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는가?
사례1	중간	모름	없다	
사례2	중간	모름	-	잘 모르겠다.
사례3	보통	간단한 인사	그냥 좋다. 친척들이 잘해준다.	
사례4		숫자	그냥 좋다	
사례5	보통	모름	없다	아니다
사례6	보통	잘함	-	아니다
사례7	중간	모름	과자를 먹어봤다고 자랑했다.	무응답
사례8	보통	모름	-	무응답

학생들이 느끼는 엄마의 한국어 수준은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엄마와 대화할 때도 한국어로 한다고 대답하였다. 단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난 (사례6)의 남학생만이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얘기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일본말 쓰지 말고 한국말로 쓰라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반대로 엄마나라에 대한 말을 할 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례6)의 남자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른다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사례1)의 여학생과 질문도중에 “엄마, 영어 할 줄 아시지? 그럼 혹시

영어로라도 대화하지 않니?” 라고 질문 하자, 자신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영어학원에 다녀야겠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답변에 연구자가 “엄마 영어 잘하시니까, 엄마한테 배우면 되잖아.”라고 반문하니 그때서야 학생은 잠깐 무언가 생각하는 듯, 엄마에게 배워야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었다.

엄마 나라에 가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만 갔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을 뿐, 갔다 왔다고 확실히 대답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럼 엄마나라에 갔을 때 대화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 엄마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셨다고 하였다. 엄마나라에 대해 좋다고 느낀다는 학생은 두 명(사례 3, 4)뿐이었으며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은 잘 하지 못하거나 그냥 친척들이 좋았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어머니와 어머니 나라와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행동을 보이며,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듯 무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 친구들에게 엄마나라에 대해 자랑한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안한다는 대답이 대부분이고, 간혹 친구들이 물어보지 않아서라고 답하였다. 그것으로 보아 아동들의 어머니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남인숙·장혼성(2009)의 연구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자녀들이 배우자보다 훨씬 낮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와는 달리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자녀사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자녀가 생기면서 비로소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할 정도로 절대적이며, 머나먼 타국에서 유일한 혈육에 대한 애정이 소중할 수밖에 없으나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국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자녀간의 원만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지역사회에서

어머니와의 또 다른 부적응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홍영란(2000)은 자신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정도가 많을수록 학교적응 전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박원모·천성문(2008)은 어머니와 자식 간, 다문화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에는 배우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도의·이경은(2009)은 자신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체계는 양육스트레스를 떨어뜨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양육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 배우자의 지지(남편의 협력)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일반 가정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이 안고 있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들에게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해 또래 아동들과 같이 문화가 다른 나라에 대한 교육이나 다른 나라 부모님과 만남시간을 통하여 관심을 높여주며 타 문화에 대한 배려의 자세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Q 2. 혹시 엄마 나라에 갔다 온 적 있니? 갔을 때 기억은 어땠어?

사례1: 4학년 때 필리핀 갔었는데 날씨도 너무 덥고, 음식도 맛이 없고, 너무 지저분해서 힘들고 싫어서 빨리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사례2: 2년 전에 갔었는데 친척들도 있고, 싫은 점은 없고 그냥 좋았어요."

사례4: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아요."

사례5: 잘 모르겠어요, 요번에 엄마가 동생만 데리고 다녀오셨는데, 저는 너무 어릴 때 가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사례6: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빠 직장일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사례7: (송편 빚기 행사에서 필리핀 과자 모습을 만들며) 엄마가 필리핀 과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어요.

Q 1. 엄마가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 있니?

사례1: 엄마가 외국인이라 다문화센터에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전에 센터에서 미술대회 했었는데, 거기서 잘 했다고 최우수상도 받았어요.

사례3: 엄마가 일본인이어서 싫은 별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화가 나서 일본어로 이야기 할 때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답답해요, 그럴 때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싫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례4: 네,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이유는 없어요.

“엄마가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니?”라는 질문에 뜻밖에 (사례4)의 남학생에게서만 그렇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이라며 대답을 회피하였으며, (사례3)의 남학생만이 엄마가 화가 나서 이야기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답답하다며 그때 엄마가 일본인이어서 싫다고 말해줄 뿐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애정적 관계는 형성할 수 있지만 자녀를 교육적이고 훈육적 양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힌 김영숙·공진희·이민경(2007)의 연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중에도 특이한 점은 (사례1)의 여학생의 답변인데 학교에 대한 질문을 할 때보다 어머니가 외국인인여서 좋은 이유가 많은 혜택들에 대한 답변이다. 연구자는 그 답변에 조금 걱정이 되었다 결혼이민자 가정유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오히려 더 편견을 만들고 차별시키게 한다는 타자화에 대한 우려(박미경·엄정애, 2007)이다. 이 학생은 모국(母國)에 대한 기억을 물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보다는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다문화센터를 통한 혜택으로 인해 외국인인 어머니가 좋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래 일반 아동들과 구분되는 사회적 혜택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권순희(2007)의 주장과 같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차별적인 교사의 대우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 동료나 선배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 차별 없이 다문화 아동과 또래 일반 아동들이 같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2) 학생들의 정체성 정도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학생들은 그저 보통의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사례4)와 (사례6)의 학생을 제외하고 전부는 한국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였다. 그 중에 (사례6)의 학생에게서 “처음 아이들이 저를 보고 외국인이라고 놀릴 때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아동의 심리는 김교정·정규석(2008)의 연구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으나 그 자각의 정도와 형태는 외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생활하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을 당연히 한국인으로만 생각하는 아동과 현재 살고 있는 한국과 어머니 나라 모두를 자신들의 나라로 인식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 나라와 다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 본인이 느끼는 정체성의 정도

대상자	다른 친구보다 자신이 더 잘하는 것이 있는가?	미래 희망	또래 친구들과 다르다 생각되는 점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 생각하나?
사례1	피아노, 그림	가수	없다	한국사람
사례2	검도	없다	다른 점 없다	한국사람
사례3	없다	전에는 체육선생님, 그러나 지금은 없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반반,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사례4	없다	없다	잘 모르겠다.	한국사람, 아니 잘 모르겠다.
사례5	없다	어릴 때 축구선수 그러나 지금은 없다	없다	어릴 때 외국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 생각한다.
사례6	-	요리사	없다	무응답
사례7	만들기	-	없다	잘 모르겠다.
사례8	없다	-	없다	잘 모르겠다.

본인이 느끼고 있는 정체성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해 (사례1)의 여학생만 “문제야, 말썽꾸러기”라고 답변하였을 뿐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장래희망에 대한 질문에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중국조선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사라(2005)는 자아개념¹²⁾에 영향을 미

12) 자아개념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태도의 복합물을 말하며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해 가는 것이다(이사라·박혜원, 2005).

치는 요인에서 짐작할 수 있다. 교사와 부모, 그리고 또래에 의해 자아개념의 영향에 대한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초등학생들의 또래 관계 및 학교적응에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중학생시기에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개념이 점차 분화되어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정체성은 본인들의 인식정도가 미약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앞으로 겪을 정체성의 혼란을 축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욱 많은 변인들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5. 또래집단 내 관계 정도

다문화학생들의 행태를 관찰하던 도중 5살-6살 또래 아이들의 왕따 놀이를 경험하게 되었다. 6살 또래의 남자아이 1명(중국인 어머니)과 여자아이 2명(중국인 어머니)이 5살의 여자아이(중국인 어머니)를 고의적으로 왕따 시키는 것이었다. 그 세 아동들은 자기들끼리 콧속말로 속닥거리며 한 여자아이를 골탕 먹이기 위해 술래잡기 놀이를 가장하여 도망 다니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러한 행위의 주도에는 한명의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였다. 아이가 울음을 터트리자 연구자는 아이들에게 왜 동생을 따돌리느냐며 질문하였다. 주동이었던 여자아이는 연구자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내보이며 “오 히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잘못했어요!”라고 되려 연구자에게 화를 내었고, 또 다른 남자아이는 겸연쩍은 모습으로 “우리는 같이 놀아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울어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남자아이의 경우는 처음 연구자가 무엇을 물어보면 “미워요”, “싫어요.”라며 적대시

하였고, 가까이 다가가려하면 “오지 마”라며 연구자를 밀어내는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간식을 줄때 하나만 가지라고 해도 두 개를 가지려 하며 자신의 것을 다 먹으면 다른 아이 것을 뺏을 기회를 보며 몰래 가져가기도 하였다. 이 아동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이는 관계공격성¹³⁾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세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여야일수록 많다는 관계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하고 사회, 인지능력이 발달할수록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회적 지탄이나 책임이 뒤따르는 직접 공격행위보다 간접 공격행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관계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아동들은 또래집단에 끼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공격적인 아동들과 합세하여 집단을 만들어 그 관계를 이용한다. 때문에 관계 공격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붕괴시킨다(심주한·유형근·손현동 2008)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동들이 학생이 되고 더 나아가 일반인이 되면 더욱더 커다란 관계를 형성하며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수용을 위해 지역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어우러지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 관계공격성은 타인이 사회적으로 수용 받으려는 감정을 손상시키거나 또래관계를 조작하고 손해를 끼침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적 행동 및 사고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행동양상은 직접적인 통제(네가~을 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사회적 소외(침묵하며 또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거부(소문 퍼뜨리기, 집단에서 거부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또래에 대한 거짓말하기), 사회적 제외(놀이나 사회적 집단에서 또래를 제외시키는 것)등이 포함된다(심주한·유형근·손현동 2008).

Ⅳ. 제주지역에 주는 함의 및 정책제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사회에 실현하고, 거주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공동체에 밀착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인권보장은 물론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다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재의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전달하는 획일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앙과는 차별화된 지역차원의 다문화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관련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의 이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다문화 정책을 기획, 입안하며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또한 행정기관과 지역의 시민단체, 학교 등 지역사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 다문화정책 관련 협의회를 신설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승준 외, 2009).

전라남도는 대불대와 연계하여 멘토링 서비스와 더불어 튜터링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아동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들이 문화적 이질감 극복과 정서안정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와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튜터링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1명이 5명을 담당하여 대상 가정의 아동에게 매주 2회 이상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에게 정서적 도

움도 주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서로 연계하여 다문화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어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들이 연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대상 프로그램은 그리 다양하지 않았으며 방과 후 수업과 멘토링 제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학교차원의 프로그램은 아주 바람직하다. 선배 아동과 저학년 아동과의 멘토링 제도는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학교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형성과 적응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멘토링의 개념을 멘티 학생과 멘토 학생 가정의 부모간의 관계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아동의 고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정서적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국제화 시대에 맞게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의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현재 백록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를 체험하고 삶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연구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예체능 프로그램 연극, 합창, 운동, 악기연주 등의 활동을 통해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게 하며 일반 아동들과 함께 어울릴

14) 뉴스와이어, 2009.09.03. "전남도·대불대 다문화가정 아동 글로벌인재 육성 시동"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예술 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또래간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점차적으로 학부모 차원으로 확대하여 이주여성과 일반 학부모가 함께 학교에서 아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여 줌으로써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서로 고민하고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차원에서 실시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다문화 학교를 통해 아동들이 이중 언어를 구사능력을 키워주는 국제화 교육 방안이다. 국제 학교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게 이주여성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모의 문화를 익힐 수 있게 되어, 정체성의 혼란은 줄어들고 자신들이 가진 장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미래에 그들을 국제화된 안목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눈앞의 이익을 보기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적으로 집중투자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차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결속을 위해 먼저 엄마와 아빠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부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각 종교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머니 학교와 아버지 학교를 통해 일반 가정의 부모와 같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유도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고민과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도 모색해 볼 수 있다.

V. 결 론

다문화정책이란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책은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과 프로그램,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평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한승준, 2008.10)을 말한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심각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초기 아동기 개입이 중요하다(이영주, 2007). 다문화 아동에 대한 문제는 교육적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문화 가족의 문제이자 곧 지역 지역사회 전반적인 문제와도 같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동기, 아니 더 나아가 유아기부터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여 아동들에게는 지역의 아동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로 어울림의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인식정도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동들이 사춘기를 겪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적응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들이 가진 다문화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면 추후에 아동이 느끼게 될 정체성 혼란은 다소 축소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의 아동수가 너무 적어 그것을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면접대상이 필리핀어머니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가정의 아이들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들을 1주일에 1회 총 7번 정도의 만남을 가지며 2~3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 만남 또한 아동들의 불규칙한 참여와 시간적 제약으로 관찰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을 위한 연구는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아이들과의 교감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연구대상을 물색하기 쉽지 않았다. 다문화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교의 허락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으며,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복지관을 통해 연구대상을 모집하려 하였지만, 참석하는 아동들이 숫자가 극히 미비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인적인 인권 침해의 우려를 들어 참석하지 못해 연구대상의 다양성을 물색하지 못했다는 점이 많은 부분 아쉬웠다.

다문화 정책은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이라는 편협된 시각을 버리고 지역주민과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성장해서 소수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학생들이 지역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그들 가족구성원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주 여성과 지역주민이 서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다문화 아동들이 주류문화를 통해 더 나은 문화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책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모두 열린 자세를 갖는 다각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박금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권순희(2007.8),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국어 교육학연구』, 제29집.
- 김도희·이경은(2009),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경로분석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2, 77-98.
- 김경숙·공진희·이민경(2009),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 교육 연구』, 제9권 4호, vol.9, no.4, 311-335
- 김교정·정규석(2008.11.11), 「다문화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 vol.8 no.11, 272-285.
- 김성호(2007.8), 「참여관찰에 의한 문화 공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마로니에 공원을 사례로」, 서울시립대대학원 조경학 석사논문.
- 김은정(2009), 「저학년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학습양식 구성요소의 영향 연구」, 『초등교육 연구』, vol.22, no.1, pp.439-457.
- 김창근(2008), 「다문화 공존과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민성의 모색」, 『윤리연구』, 제73호, 21-50.
- 김형구(2009.11.17), 미혼 男 '결혼 대란 시 국제결혼 적극 생각 한다', 세계일보
- <http://www.segye.com/Articles/Main.asp>
- 남인숙·장훈성(2009),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 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통권 제35호, pp.7-29.
- 노경란·방희정(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발달과 태도변화」,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 15, pp.49~79

- 박경석(2009), 「초등학생의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 박미경·엄정애(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제28권 2호.
- 박연경·황혜정(2009), 「어머니의 리더십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 논집』.
- 박주희·남지숙(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반응」, 한국청소년연구 Vol.21.No.2. pp.129-152.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심주한·유형근·손현동(2008), 「초등학생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 대인문제해결 사고의 차이 분석」, 『열린교육연구』, 제16집 제2호.
- 안권순(2009.8), 「다문화청소년의 건전 육성 방안」, 『청소년학 연구』, 제16권 제7호.
- 오은순·권재기(2008.12.20), 「텔파이 조사를 활용한 교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방안 모색」, 『청소년학 연구』, 제16권 제1호 439-465.
- 원지현(2004.08),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침례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
- 이사라·박혜원(2005), 「부모, 또래,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국 조선족과 한국아동 및 청소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1호. pp.170.
- 이해영(2005.1.10), 『조사방법의 이해』, 대영문화사.
- 임의영(2006.12), 「지방생산모형의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타자화 논리와 내부 식민지론의 통합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0권

- 제4호(통권67호), 131-154.
- 정예리·이숙희(2009. 11), 「다문화 가정 아동의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 2009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219~234.
- 정재훈(2004), 사용자행동의 의미 추출과 인터랙션 디자인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관찰법과 의미론 관점의 동사 의미망을 중심으로.
- 정현주(2007.2),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겪는 경험」, 가톨릭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
- 최영자(2008),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학위논문.
- 최종렬(2009봄/여름), 「탈 영토화된 공간에서의 다문화주의: 문제적 상황과 의미화 실천」, 『사회이론』, 통권 제34호, pp.189-230.
- 통계청(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http://kosis.kr/nsportal/index/index.jsp>
- 한승준(2008.10),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분석」, 『한국 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5)
- 한승준 외(2009),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정책학회, 2009 연구보고서 6-4
- 한정애(2008.12.),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정분석」,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 cultured home to the local culture in Jeju district

Hyun Mi-Kyung* Hwang Gyeong-Soo **

ABSTRACT

The multi cultured home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recently. Such increase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s linked with the increase of the children from multi cultured home and many discussions have been brought up. The degree of adaption to the culture for the parents makes influence on the positive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children. The matter of the adaptation to the culture is raised to the children not only to the parents and it makes the difference in the cultural adapt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problems of non-adaptation to the children implicates the psychological problem and it has a tendency to last till to be an adult. Therefore, the intervention in the childhood is very important to minimize such matters of non-adaptation. The children is an valuable asset to lead the future. The title of multi culture tends to make another boundary or make social link and has a possibility to hide social and economical inequality or breach the personality. Therefore, the matter of

* Graduate course in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at Graduate School in Je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in Jeju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at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in Jeju National University

non-adaptation to local culture for them can be regarded to have big weight out of many problems because it may be connected from the children development process till adult. Accordingly, this study will survey the degree of adaptation to the local culture through the students from the hom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Jeju district, school life and identity, and the their cultural activities and closer political recommendation will be suggested in the level of local society by surveying the level of identity recognition.

Keyword: Multi culture, Multi cultured home, Children from multi cultured home, self identity, school adaptation

논문투고일 2010. 06. 19

심사완료일 2010. 08. 07

게제확정일 2010. 08. 16